한국고전연구 53집/한국고전연구학회/2021/259~285쪽.
http://dx.doi.org/10.20516/classic.2021.53.259

한문본 <남정팔난기> 창작방식 연구

—중국소설의 수용을 중심으로

홍현성*

<차 례>

1. 문제제기
2. 중국소설 수용 방식
   1) 삽화(揷話)의 모방
   2) 서술의 차용
3. 창작방식의 의미
4. 결언

〈국문초록〉

이 글은 한문본 〈남정팔난기〉에 나타난 '중국소설적 성격'에 주목해, 창작방식의 하나로 '중국소설의 수용'을 검토해본 것이다. 한문본은 《사대기서》를 위주로, 《전등신화》와 〈서상기〉 등 중국소설의 삽화와 서술을 모방 및 차용했다. 《사대기서》 가운데 〈수호지〉는 삽화와 서술 모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금병매〉는 서술에 국한해 활용되었다. 한문본은 모방에 그치지 않았다. 한문본은 중국소설의 삽화와 서술을 용광(鎔鑛)해 이채로운 서사를 개진했다. 또 한문본은 《사대기서》를 활용한 사실을 노출했다. 한문본은 《사대기서》 열독이라는 문화적 조류를 추수해 창작되었다. 중국소설의 모방 및 차용 그리고 변용은 조선소설과 중국소설을 모두 극복하겠다는 한문본 작가가 지녔던 '창안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주제어 금병매, 남정팔난기, 사대기서,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지, 혼성모방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www.kci.go.kr

1. 문제제기

〈남정팔난기〉는 백화체(白話體)로 창작한 소설이다. 현전하는 20여 종의 국문본은 연원(淵源)을 거슬러 오르면 지금은 일실된 '최초 국문 번역본'에 가 닿는다. 이 '최초 국문본'의 대본(對本)이 바로 한문본이다.[1] 한문본과 국문본을 비교하면 내용 차이가 없지 않다.[2] 한문본은 '작가 의식'을 온전히 담은 유일한 이본인 셈이다.

그런데 한문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연구가 덜 된 이본이기도 하다. 국문본은 임치균이 선편(先鞭)을 잡아 연구한 이래, 여러모로 조명되었으나[3] 한문본 연구는 영성(零星)했다. 최윤희 외에 주목한 연구자는 없었다. 최윤희는 박사논문에서 한문본의 존재를 보고했고 국문본이 번역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4] 또 후속 논고에서 체제, 조선 정서에 반하는 표현, 중국

1) 한문본 소장처는 일본 오사카 부립도서관(청구기호: 韓14-29)이다.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에서 영인 자료를 제공한다.

2) 최윤희, 「〈남정팔난기〉 영웅 형상과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27~40쪽.

3) 임치균, 「「남정팔난기」 연구」, 『국문학연구』 1,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97, 233~275쪽. 임치균은 팔난을 규정했고 선본을 확정해 후속 연구를 촉발했다. 이후 연구는 팔난의 의미, 영웅 형상, 이본의 서사 지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거듭했다. 한글본을 대상으로 삼은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희경, 「〈남정팔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8, 1~119쪽; 최윤희, 「〈남정팔난기〉의 여성 영웅과 영웅성 발현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93~327쪽; 최윤희, 「〈남정팔난기〉 유통 형태의 변화와 의미」, 『우리어문연구』 21, 우리어문학회, 2003, 231~256쪽;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29~68쪽; 김도환, 「〈남정팔난기〉의 인물 형상화와 특징」,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69~200쪽; 최윤희, 「〈남정팔난기〉의 인물 관계와 그 의미」, 『고전과 해석』 7,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97~119쪽; 이희자, 「『남정팔난기』에 나타난 영웅성의 의미」, 『국학연구론총』 8, 택민국학연구원, 2011, 267~294쪽; 박혜순, 「고전소설에 나타난 복수 영웅 '규합(糾合)'의 특징적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64, 동양고전학회, 2016, 9~44쪽.

4) 최윤희(2004), 앞의 논문, 14~49쪽.

www.kci.go.kr

생활상의 충실한 묘사 등에 근거해 한문본을 '중국소설적 성격'이 농후한 이본이라고 규정했다.[5]

최윤희의 연구는 '한문본의 특징'을 적확히 조명해 〈남정팔난기〉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두 가지 의문을 남겼다. 첫째, 중국소설적 성격이 농후한 한문본은 중국소설인가? 둘째, 중국소설적 성격의 연원(淵源)은 무엇인가? 이 글은 선행연구가 남긴 두 가지 의문에 착목했다.

중국소설적 성격의 연원을 탐색하는 논의는 '국적 문제'를 선결해야 타당성이 있다. 중국소설인 것과 조선소설이면서 중국소설적 성격을 보인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작품 국적은 논의의 전제에 해당하므로 '잘못된 전제'에서 연역(演繹)하면 그 결론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둘째 의문을 풀려면, 첫째 의문을 옳게 해결해 전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 고전소설 가운데 '낙선재본 소설'은 국적 논란이 없지 않았다. 국적 논란이 있던 낙선재본 소설 가운데 〈태원지〉는 이 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원지〉는 우리 고전소설로는 드물게 해양 탐험과 건국을 다뤘다. 또 이 작품은 〈삼국지연의〉를 활용했다. 소설 마니아(Mania)였던 사도세자가 『중국소설회모본』「소서(小敍)」에 언급할 만큼, 〈태원지〉와 기존 조선소설은 달랐다. 그런데 〈태원지〉는 서술에 『동몽선습』을 활용했다.[6] 〈동몽선습〉을 활용한 서술은 국적을 알리는 일종의 '표지판(標識板)' 역할을 했다.

한문본 역시 중국소설적 성격이 농후하지만, 서술에 조선 문인의 글을 활용한다.

①長安近歟, 首被姬文之化, 明君出矣. ②言觀魯侯之旂. ③紱冕所興, 多朝中之甲族. 冠蓋相望, 輳日下之星軺. ④與我造攻者, 惠旣洽於如春. 來子亟

5) 최윤희, 「한문본 〈남정팔난기〉의 특징」, 『중국소설논총』 24, 한국중국소설학회, 2006, 326~327쪽.

6)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354쪽.

www.kci.go.kr

役者, ⑤功告訖於不日. 實爲天子彰殊勳之擧. ⑥允叶吾君頌仁德之休. 梴栱閑楹. 創成鳥革之制. 重檐複霤. 爰屬燕賀之辰.[7] 〈남정팔난기〉

ⓐ紱冕所興, 盛朝中之甲族. 冠蓋相屬, 輳日下之星軺. ⓑ長安近歟. 首被周文之化. 明主出矣. ⓒ言觀魯侯之旂. 當邦命之維新. 修廟貌而仍舊. 痛矣丙子之亂. 奄爲丁女之延. 武城絃歌. 殊欠采芹之詠. 河陽桃李. 猶興鞠草之嗟. 曾貽幾年一同之羞. 似待今日三異之政. ⓓ與我共理者. 惠旣洽於如春. 有物陰相之. ⓔ役告訖於不日. 亦賴吾黨二三子之力. ⓕ允協同郡千萬人之謀. 梴栱閑楹, 復見鳥革之制. 重簷複霤, 爰屬燕賀之辰.[8]

「안산성묘중건상량문(安山聖廟重建上梁文)」

한문본 제16회에서 황극은 문사 예약우(倪若愚)에게 상량문을 부탁한다. 위는 예약우 상량문, 아래는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의 일부다.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은 여느 상량문처럼 문장마다 전거가 있다. 예컨대 ⓐ는 반고(班固), 「서도부(西都賦)」 "英俊之域, 紱冕所興, 冠蓋如雲, 七相五公"을 전거로 삼는다. 따라서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은 중국문헌을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紱冕所興, 冠蓋如雲"과 "盛朝中之甲族", "輳日下之星軺"를 같이 쓴 문장은 중국기본고적고(中國基本古籍庫)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중국 문헌과 완전히 일치하는 구절은 ⓒ가 유일했다. 또 한국고전DB에서 검색한 결과, ⓐ~ⓕ를 모두 갖춘 글은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이 유일했다.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의 표현은 전거는 있지만, 고유하다고 하겠다.

인용문을 나란히 둔 데서 드러나듯, 한문본과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의 표현은 대체로 일치했다. ①과 ⓑ, ②와 ⓒ, ③과 ⓐ, ④와 ⓓ, ⑤와 ⓔ, ⑥과

7) 『남정팔난기』 인, 제16회 「귀계촌에서 노부인을 맞이하고 태화궁에서 낙성연을 열다(貴溪村迎老夫人 泰和宮設落成宴)」, 68쪽.

8) 이경석, 『백헌선생집(白軒先生集)』 권15, 「안산성묘중건상량문」.

www.kci.go.kr

ⓕ는 몇몇 자구를 차지하면 같을 만큼 비슷했다. 또 두 상량문은 '아랑위(阿郎偉)' 구절도 비슷했다. 따라서 한문본 상량문은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을 모방해 서술되었다.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은 중국에서 회자되던 글이 아니다. 또 필사자가 '원전에 없던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을 전문(全文)이 아닌 단락을, 문장 배치를 바꿔가며 삽입할 연유는 없다. '원전에 있던 상량문'을 문장 배치를 바꿔가며「안산성묘중건상량문」으로 대체할 연유 역시 없다. 작가가 애초에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을 활용해 작중 상량문을 창작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안산성묘중건상량문」이 쓰였으니 한문본 국적은 자명하다. 한문본은 조선소설이다.

그렇지만 '중국소설적 성격'이 농후해 중국소설이 아니라고 단언하기에 주저된다는[9] 시각은 여전히 일부 유효하다. '중국소설적 성격'이라는 한문본 특징 때문이다. 이제 살피겠지만, 한문본은 중국소설을 모방하고 서술을 차용한다. 대상 작품은 《사대기서》를 필두로, 〈서상기〉, 《전등신화》 등 다채롭다. 한문본에 나타난 '중국소설적 성격'의 연원은 다름 아닌 '중국소설'이다. 실상이 이러하므로 한문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소설을 수용한 대목을 판별해 모방과 창안을 가름하고 의미를 구명(究明)하는 작업이 절실하겠다. 이 글은 방금 말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 중국소설 수용 방식

1) 삽화(揷話)의 모방

한문본은 중국소설을 모방해 삽화를 구성하지만, 서사 자체는 고유하다.

9) 최윤희(2006), 앞의 논문, 326쪽.

www.kci.go.kr

한문본은 도적에게 납치된 어머니를 찾아 나선 황극이 여덟 가지 고난을 이겨낸 뒤, 의형제와 합심해 만군(蠻軍)을 물리쳐 공을 세우는 과정을 골자(骨子)로 삼는다. 또 황극은 만년에 정비(正妃)가 죽자 염세(厭世)에 빠졌다가 선도를 수련해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데 이는 선연(仙緣)에 따른 결과다. 《사대기서》에 한문본과 비슷한 서사는 없다.

한문본에 가장 짙은 음영을 드리운 《사대기서》는 〈수호지〉다.[10] 구체적으로 한문본 제2, 3, 4, 8, 9, 14회에서 〈수호지〉를 모방한 삽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문본 작가는 〈수호지〉 군담을 많이 모방한다. 제8회에서 황극과 서호자의 도술 대결, 서호자의 화공(火攻), 제9회 송군과 연화마군의 전투, 제14회 항장(降將) 마선의 사항계(詐降計)는 각각 〈수호지〉 제52회, 제53회, 제54~56회, 제64회의 모방이다.

여기서는 제9회 송군(宋軍)과 연환마군의 전투를 살피겠다. 송군은 패배한 뒤 구겸창을 마련해 역전한다. 다음은 황극 휘하 장수 이성이 구겸창법을 가르치는 장면이다.

> 李晠便鞠教衆軍道 : "但凡馬上使這般軍器, 就腰胯裡做步上來, 上中七路, 三鉤四撥, 一搠一分, 共使九個變法. 若要是步行使這鉤鐮鎗法, 亦先使八步四撥, 蕩開門戶, 十二步一變, 十六步大轉身. 分鉤鐮鎗徼二十四步, 那上攢下, 鉤東撥西, 三十六步, 渾身盖護, 奪硬鬪强," 此是鉤鐮鎗正法, 有詩訣爲證 : 四撥三鉤通七路, 共分九變合神機. 二十四步那前後, 一十六翻大轉圍.[11] 〈남정팔난기〉

10) 한문본 제16회의 산장시는 "但見肥羊寧父老, 不聞嘶馬動將軍"이다. 이 산장시는 김성탄평비본 대미 7언 율시 상하 편 가운데 하편 함련과 일치한다. 7언 율시는 김성탄이 70회로 대단원을 맺으며 제시한 것으로 100회본이나 120회본에 없다. 따라서 한문본 작가가 탐독한 〈수호지〉는 '요참본(腰斬本)'으로도 불리는 '김성탄평비본'이다.

11) 『남정팔난기』 지, 제9회 「임시 절월을 지녔던 소년 장수는 장군이 되고 아달왕은 사신을 보내 이웃나라 미타왕에게 도움을 구한다(假節鉞白衣拜大將, 求隣助阿達使彌陀)」, 55~56쪽. 이성이 지휘봉을 휘두르며 구겸창 부대에 말했다. "말을 타고

www.kci.go.kr

徐寧便教衆軍道 : “但凡馬上使這般軍器, 就腰胯裏做步上來, 上中七路, 三鉤四撥, 一搠一分, 共使九個變法. 若是步行使這鉤鐮槍, 亦最得用. 先使人步四撥, 蕩開門戶, 十二步一變, 十六步大轉臼. 分鉤鐮搠緻二十四步, 挪上攢下, 鉤東撥西, 三十六步, 渾身蓋護, 奪硬鬥强.” 此是鉤鐮槍正法. 有詩訣爲證 : 四撥三鉤通七路, 共分九變合神機. 二十四步挪前後, 一十六翻大轉圍. 徐寧將正法一路路教演, 教衆頭領看.[12] 〈수호지〉

인용문에 나타나듯 두 작품은 자구까지 비슷하다. 또 연환마군과 아군(我軍)의 격돌, 구겸창의 마련, 창법 수련에 이르는 과정도 두 작품은 같을 만큼 비슷하다. 한문본 속 송군과 연환마군의 전투는 〈수호지〉 제54~56회의 모방이다. 물론, 차이도 있다. 한문본은 이성이 제조에서 강습까지 총괄한다. 반면, 〈수호지〉는 탕륭이 구겸창을 만들고 창술 고수 서녕을 따로 초빙해 창법을 강습한다.

양산박과 연환마군(連環馬軍)의 전투는 김성탄 평비본 〈수호지〉 후반부 백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국소설회모본』「호연작구겸창슈곤(呼延

이 구겸창을 쓰자면 사타구니로 걷듯이 허리를 써야 한다. 중상급의 일곱 가지 법식이 있다. 세 번 걸어 당기고 네 번 헤치며 한 번 찌르고 한 번 젖힌다. 일곱 가지 법식에 당기고 헤치는 법 하나, 찌르고 젖히는 법 하나 도합 아홉 가지 법식으로 변용된다. 만약 보병이 쓴다면 구겸창은 최종병기라 할 만하다. 먼저 네 걸음에 활짝 열어 젖히는 탕개문호 자세를 한다. 열두 걸음에 동작을 한 번 바꾸고 열여섯 걸음에 몸을 돌린다. 스물네 걸음에 구겸창을 찌르고 창날을 적군에게 얽는다. 위쪽으로 쳐들었다가 아래로 내린다. 동쪽을 걸어 서쪽으로 젖힌다. 서른여섯 걸음을 가서 창을 휘둘러 몸을 보호하는 혼신개호 자세를 하고 굳세고 강하게 무찌른다.” 이것이 구겸창정법이니, 시로 쓴 비결이 전한다. 네 번 헤치고 세 번 당기는 투식이 일곱 개, 모두 아홉 번이나 바뀌니 신기라 하겠네. 스물네 걸음에 앞뒤를 바꾸고 열여섯 걸음으로 크게 한 바퀴 돈다네. 이성이 구겸창정법을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며 부대에 가르쳤다. ※자구 비교를 위해 원문을 본문, 번역문을 각주에 놓았다.

12) 『수호지』, 제56회 「서녕이 구겸창법을 가르치고 송강은 연환마군을 크게 무찌른다(徐寧教使鉤鐮槍 宋江大破連環馬)」. ※〈남정팔난기〉 번역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호지〉 번역은 생략한다.

www.kci.go.kr

灼鉤鎌槍受困)」이 바로 양산박과 연환마군의 전투를 그린 것이다. 제54~56회에 걸쳐 펼쳐지는 양산박과 연환마군의 전투는 〈수호지〉 애독자라면 모를 수 없다. 유명한 삽화(揷話)를 고스란히 모방해 제시했으므로, 이는 '의도적 노출'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문본 작가는 〈수호지〉를 모방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드러낸 것이다.

한문본은 〈수호지〉를 여러모로 모방하지만, 도습(蹈襲)하는 데 그친 것은 아니다. 이제 살필 삽화는 변용이 나타난다.

劊子進前道: "這等牛子, ①只合割了心肝, 做箇大王醒酒湯, 我等喫塊親鮮肉." 因提着銅盆盛水來, 解開兩人前襟, 一邊掬水洗下, 一邊出尖刀, 一把向心窩裡要劏. ②大凡人之心胸都來是血泊裏, 潑水洗滌, 則那心肝十分脆的好喫.[13] 〈남정팔난기〉

"大王方才睡, 且不要去報.等大王酒醒時, 卻請起來, ⓐ剖這牛子心肝, 做醒酒湯, 我們大家吃塊新鮮肉."〔…中略…〕只見一個小嘍囉捧一大銅盆水來, 放在宋江面前 ; 又一個小嘍囉卷起袖子, 手中明晃晃拿著一把剜心尖刀. ⓑ那個掇水的小嘍囉便把雙手潑起水來, 澆那宋江心窩裏. 原來但凡人心都是熱血裹著, 把這冷水潑散了熱血, 取出心肝來時, 便脆了好吃[14] 〈수호지〉

13) 『남정팔난기』 천, 제3회 「황극이 녹명촌에서 재앙을 면하고 주봉진이 적송현에서 크게 싸우다(黃拱辰脫禍鹿鳴村 朱鳳珍大鬧赤松峴)」, 47쪽. 망나니가 앞에 와 말했다. "이 소새끼들아! 네놈들 배때기를 갈라 심장과 간을 꺼내 대왕님 해장탕을 끓여 드리고 우리도 신선한 고기 몇 점 먹어야겠다." 말을 마치고는 구리 대접에 물을 담아 왔다. 두 사람 옷섶을 풀어 헤쳤다. 한쪽에서 물을 떠 가슴팍을 씻겼고 다른 쪽에서 비수를 꺼내 명치를 찔러 가르려던 참이었다. 무릇 사람의 심장은 따뜻한 피에 싸였다. 찬물을 뿌려 씻으면 곧 심장과 간이 물러져 먹기 좋다.

14) 『수호지』, 제31회 「무송이 술에 취해 공량을 패고 연순은 의리로 송강을 놓아준다(武行者醉打孔亮 錦毛虎義釋宋江)」.

www.kci.go.kr

황극과 주봉진이 노략질하던 부하를 물리치자, 두령 노천귀는 많은 졸개를 보내 두 사람을 사로잡는다. 노천귀 산채 망나니는 두 사람의 심간(心肝)을 도려내 해장탕에 쓰려고 한다. 이 삽화는 〈수호지〉 제31회의 모방이다. 제31회에서 송강은 연순의 산채에 잡혀 해장탕이 될뻔한다. 망나니는 심장과 간을 도려내 해장탕을 끓이자고 말한다(ⓐ). 두령 연순이 왕영, 정천수를 불러 함께 먹겠다고 하자, 졸개는 작업을 시작한다(ⓑ). 한문본 ①, ②와 〈수호지〉 ⓐ, ⓑ는 삽화 속 상황은 물론, 서술까지 일치한다.

이후 전개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수호지〉는 두령 연순이 '송강'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풀어주고 연을 맺는다. 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황극과 주봉진을 구한 호걸은 두령 노천귀가 아닌 휘하 장수 백성태다. 백성태는 두 사람을 거두라고 노천귀를 설득한다. 이 일을 계기로 황극과 백성태는 의형제의 연을 맺는다. '해장탕이 될뻔했던 삽화'는 두 작품에서 호걸과 연을 맺는 '계기'가 된다.

한문본은 〈수호지〉를 모방하되 연을 맺는 호걸을 두령에게 반감을 지닌 휘하 장수로 변용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 〈수호지〉의 '기법'을 활용하려는 의도다. 〈수호지〉는 108명에 달하는 호걸이 등장한다. 작중 호걸은 저마다 사연을 지닌 채 특정 삽화를 '계기'로 양산박에 합류한다. 위에서 인용한 삽화도 송강과 연순이 연을 맺는 계기가 된다. 한문본 작가는 호걸끼리 연을 맺는 '기법'을 인지하고 모방해, 황극과 백성태가 만나는 계기로 활용한 것이다.

둘째, 반감을 개진하려는 의도다. 한문본 작가가 마뜩잖게 여긴 지점은 두 군데다. ① 법외 도당에 대한 우호적 시각. ② 잔혹한 짓을 일삼고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전개. 앞서 살폈던, 〈수호지〉 연순 일당은 사람의 심간으로 탕국을 끓여 먹었지만, 송강과 연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야무야 '의협 집단'이 된다. 한문본은 〈수호지〉 삽화를 모방하면서도 연을 맺는 인물을 두령 노천귀가 아닌, 그에게 불만을 지닌 백성태로 변용해 노천귀 일

www.kci.go.kr

당을 징치하는 삽화의 포석을 놓은 셈이다. 이후 황극과 백성태는 합심해 말 그대로 노천귀 일당을 소탕(掃蕩)한다.

〈삼국지연의〉는 〈수호지〉에 비해 영향 정도는 낮다. 그렇다고 영향이 흐릿하지는 않다. 한문본은 〈삼국지연의〉를 모방해 다양한 삽화를 구성한다.[15]

한문본 제15회에서 남만을 평정한 뒤 개선하던 황극은 노수에서 위령제를 지낸다. 이 삽화는 〈삼국지연의〉 제91회의 모방이다. 해당 장회에서 제갈량은 남만을 평정하고 개선하던 중 노수에 이르러 위령제를 지낸다. '남만 평정'·'개선'·'노수에서 위령제'까지 한문본과 〈삼국지연의〉는 일치한다. 또 위령제에서 낭독하는 제문도 두 작품은 일치한다. 유명한 삽화와 제문을 고스란히 모방해 제시했으니, 이 역시 〈수호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삼국지연의〉를 창작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드러낸 것이다.

물론 차이도 있다. 제갈공명이 노수에 풍랑이 이는 연유를 묻자 맹획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한다. 제갈공명은 마다하며 위령제를 지낸다. 반면, 황극은 먼저 나서서 전몰장병을 추념하고 위령제를 준비시킨다. 두 영웅을 나란히 놓고 보면, 특별한 계기 없이 전몰장병을 추념한 황극의 마음 씀씀이가 더 돋보이는 게 사실이다. 한문본 작가는 〈삼국지연의〉 속 해당 삽화로는 황극의 덕량(德量)을 충실히 드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유기〉를 모방한 삽화는 〈수호지〉, 〈삼국지연의〉에 비해 국소적이다.[16] 다음은 한문본 제6회에서 마을 노인이 동남동녀 한 쌍을 이성대왕에

15) 한문본은 〈삼국지연의〉 속 진법을 모방해 제시한다. 한문본 제6회에서 황극은 돌무더기를 이용해 진을 벌인다. 이는 〈삼국지연의〉 속 팔진도의 모방이다. 또 한문본 제11회에서 백성태는 서호자가 벌인 '팔문금쇄진'에 갇힌다. 한문본 팔문금쇄진은 〈삼국지연의〉 조인의 팔문금쇄진과 제갈공명의 팔괘진을 조합한 형태다.

16) 〈서유기〉는 한문본 핵심 설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어려움을 이기고 지향가치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한문본 8난과 〈서유기〉 81난은 근사(近似)했다. 최윤희(2004), 앞의 논문, 135~136쪽.
한편, 한문본의 개성 가운데 하나인 오행(五行)에 따른 인물 안배 역시 〈서유기〉의

www.kci.go.kr

게 바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 이 산 이름이 화악산입니다. 산 중턱에 이성묘가 있는데 아주 영험합니다. 매년 마을 수백 호 사람들이 금은을 모아 남아 한 명, 여아 한 명을 마련하고 삼생과 예물을 갖춰 이성대왕께 봉헌합니다. 그러면 그 해는 논밭에 풍년이 들고 여섯 종류 가축이 해를 입지 않으며 사람도 병 없이 무탈합니다. 네 계절 모두 안정되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성의가 미흡하고 준비물 가운데 빠진 게 있으면 호표가 횡행하고 〔…중략…〕[17]

요괴가 두 마리인 까닭에 이성대왕으로 불린다. 이성대왕은 남녀 아이 한 쌍을 잡아먹지만, 사시를 안정시켜 풍년이 들게 한다. 마을 주민은 돈으로 아이를 사지 못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내놓아야 한다(多以金銀廣求四處, 倘若不求, 雖自己子女中必薦乃已). 해당 삽화의 핵심 설정은 '동남동녀 인신공양'과 이에 따른 '요괴의 혜택'이다.

다음은 〈서유기〉 제47회에서 노인이 손오공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 올해가 우리 집 차례입니다. 우리 마을은 백여 가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지국 원회현 관내 소속 진가장입니다. 이 영감대왕이 일 년에 한 번 제사를 받습니다. 동남동녀 한 쌍과 돼지와 양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영감대왕은 제물을 한꺼번에 삼키고 나서야 우리를 보호해 바람과 비를 순조롭게 합니

영향이다. 〈서유기〉 제47회는 「聖僧夜阻通天水 金木垂慈救小童」, 제89회는 「黃獅精虛設釘鈀宴 金木土計鬧豹頭山」인데 금은 손오공, 목은 저팔계, 토는 사오정을 일컬었다.

17) 『남정팔난기』 천, 제6회 「화악산에서 장사가 신마를 얻고 면죽성에서 고립된 부대로 굳세게 적을 막다(華萼山壯士得神駿 綿竹城孤軍抗勁敵)」 91쪽. 這山喚做華萼山, 山腰有個二聖廟, 神道灵驗, 每年玆鄉中數百戶居住的人, 鳩聚金銀貿得一箇童男·一箇童女, 及三牲禮幣, 奉獻二聖大王, 其歲田禾大熟, 六畜無損, 人無疾疫, 四時安享, 若有一半分誠意欠少, 不做准備, 虎豹縱橫, 疾疫交加〔…中略…〕.

www.kci.go.kr

다. 만약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즉시 재앙을 내리지요.[18]

〈서유기〉 속 영감대왕은 매해 동남동녀 한 쌍을 잡아먹는다. 그 대신 영감대왕은 바람과 비를 순조롭게 해준다. 위 인용문에 앞서 노인은 영감대왕을 두고 "비록 은혜 많다고 하나 도리어 원한 맺히니, 자비로운 혜택 베풀면서 사람을 해하네(雖則恩多還有怨, 縱然慈惠却傷人)"라고 읊조린다. 한문본 이성대왕과 〈서유기〉 영감대왕 모두 일 년에 한 번 동남동녀 한 쌍을 잡아먹는 대신에 혜택을 내리므로, 해당 삽화 속 주요 설정은 두 작품이 같다. 한문본 이성대왕 퇴치 삽화는 〈서유기〉를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한문본 삽화는 서사 전개상 불요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성대왕은 '오기린'과 '황금철퇴'였는데 황극은 둘을 제압해 탈것과 무기를 얻는다. 영웅소설의 문법을 따른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때 황극은 이미 남화산 진인에게 '송문고정검'을[19] 받은 시점이다. 이성대왕도 '송문고정검'으로 제압한다. 검을 받은 다음, 요괴를 물리쳐 무기를 재차 얻은 것이다.

무기를 중복해서 얻은 연유는 두 가지다. 첫째, 검과 철퇴는 '도사'면서 '장수'라는 황극의 복합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둘째, 〈서유기〉 영감대왕이 잎이 아홉 개 달린 '철퇴'를 쓰기 때문이다. 한문본은 이를 의식해 〈서유기〉를 모방해 이성대왕 퇴치 삽화를 구성하면서 '철퇴'를 이성(二聖)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것이다. 이로써 모방한 대상이 〈서유기〉 영감대왕 퇴치 삽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황극이 송문고정검을 얻은 다음 다시 얻은 '황금철퇴'는 〈서유기〉를 가리키는 표지판인 셈이다.

---

18) 『서유기』, 제47회 「삼장법사는 통천수에서 길이 막히고 오공과 팔계는 소동을 구하다(聖僧夜阻通天水 金木垂慈救小童)」. 今年正到捨下, 我們這裏有百家人家居住, 此處屬車遲國元會縣所管, 喚做陳家莊. 這大王一年一次祭賽, 要一個童男, 一個童女, 猪羊牲醴供獻他. 他一頓吃了, 保我們風調雨順. 若不祭賽, 就來降禍生灾.

19) 황극은 남화산 진인에게 송문고정검을 받고 오뢰정심법을 배운다. 송문고정검과 오뢰정심법은 〈수호지〉 공손승이 쓰는 무기와 술법이다.

www.kci.go.kr

이제껏 살폈듯 한문본은 〈수호지〉, 〈삼국지연의〉, 〈서유기〉를 모방 및 변용해 삽화를 구성했다. 또 한문본은 세 작품을 서사에 활용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주재(主材)를 노출하며 변용했으니, 한문본은 도습(蹈襲)하는 데 그친 표절작이 아닌 모방으로써 창안(創案)을 강구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2) 서술의 차용

서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중국소설은 삽화와 마찬가지로 〈수호지〉다. 한문본은 제1, 2, 3, 4, 11, 13, 14, 15, 16회를 산장시(散場詩)로 정리한다. 이 가운데 5편(제3, 10, 11, 14, 16회)의 출전이 〈수호지〉 산장시다. 〈수호지〉가 삽화뿐만 아니라, 서술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문본 속 장수 묘사는 〈수호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음은 한문본과 〈수호지〉에 나오는 장수 묘사다.

> 鸞鈴響處, 跳出馬騧麾下第一等驍將屈岱來, 提着手中鎗出馬, 直至陣前, 勒住馬, 橫著鎗在手, 果是面如噀血, 碧眼凸出, 雄壯獰孟, 不是凡流. 但見 : 頭戴一頂欺霜賽雪的鑌鐵盔, 上撒著一把青纓, 身穿一副鉤嵌梅花榆葉甲, 繫一條紅絨打就勒甲條, 前後獸面掩心鏡, 上籠着一領青羅生色花紋袍, 垂著條紫絨飛帶, 脚登一雙黃皮襯底靴, 一張皮靶弓, 數根鑿子箭, 手中挺着渾鐵点鋼鎗, 騎的是一匹火炭般赤千里嘶風馬. 兩邊軍將, 暗暗地相顧喝采, 雖不知末梢武藝如何, 先見那威風出衆.[20] 〈남정팔난기〉

20) 『남정팔난기』 지, 제7회 「계획을 세워 손만홍을 죽이고 법총이 능력을 부려 적을 물리치다(設凶計孫萬興喪命 打賊將法聰師逞能)」, 17~18쪽. 말방울 소리가 요란히 울리는 곳에서 마달 휘하 제일 용맹한 장군 굴대가 달려 나왔다. 손에는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 곧바로 진 앞에 서며 말고삐를 잡으며 말을 멈춰 서며 창을 비껴들었다. 과연 얼굴은 피를 뿜듯 붉었고 푸른 눈은 퉁방울 같았다. 웅장하고 용맹함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묘사하면 이렇다. 머리에는 서리처럼 싸늘하고 눈처럼 차가운 빛이 나는 쇠 투구를 썼다. 투구 위에는 푸른 술이 달렸다. 몸에는 매화를 새긴 느릅나무

www.kci.go.kr

鸞鈴響處, 楊志提手中槍出馬, 直至陣前, 勒住馬, 橫著槍在手, 果是勇猛. 但是, 頭戴一頂鋪霜耀日盔, 上撒著一把靑纓, 身穿一副釣嵌梅花榆葉甲, 系一條紅絨打就勒甲條, 前後獸面掩心, 上籠著一領白羅生色花袍, 垂著條紫絨飛帶, 脚登一支黃皮襯底靴, 一張皮靶弓, 數根鑿子箭, 手中挺著渾鐵點鋼槍, 騎的是梁中書那匹火塊赤千里嘶風馬. 兩邊軍將, 暗暗地喝采, 雖不知武藝如何, 先見威風出衆.[21] 〈수호지〉

위는 한문본 만장(蠻將) 굴대, 아래는 〈수호지〉 양지를 묘사한 대목이다. 한문본과 〈수호지〉는 몇몇 자구를 빼면 그대로 일치한다. 한문본은 굴대에 앞서 황극, 〈수호지〉는 색초를 묘사하는데 이 역시 두 작품은 일치한다.

한문본은 장수 묘사뿐만 아니라 사소한 장면도 〈수호지〉를 차용해 서술한다. 작중 용진천 어머니의 잔칫상 묘사는 〈수호지〉에 비해 순채(蓴菜)와 젓갈(肥鮓)이 더 있을 뿐이다.[22] 또 한문본은 〈수호지〉에 나오는 상투구도 활용한다. "다리를 짧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했다(恨基爹娘少生了兩脚踦)"

잎 모양의 갑옷을 입었다. 한 줄기 붉은 융으로 만든 허리띠를 찼다. 앞뒤 짐승얼굴을 새긴 호심경을 달았다. 그 위에 다시 푸른 천에 꽃무늬가 있는 전포를 입었다. 거기다 나풀거리는 자색 끈을 늘어트렸다. 발에는 한 쌍 누른 가죽을 합쳐 통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 가죽으로 싼 활, 긴 촉을 박은 화살 몇 개를 지녔다. 손에는 혼철점강창을 쥐었다. 불덩이 석탄처럼 붉은 천리시풍마를 탔다. 양쪽 장군 모두 서로 돌아보며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비록 무예의 우열은 모르나, 드러난 위풍은 출중했다.

21) 『수호지』, 제12회 「양지가 북경에서 무예를 겨루고 색초가 동곽에서 공을 다툰다(靑面獸北京鬥武 急先鋒東郭爭功)」.

22) 『수호지』, 제19회 「양산박 호걸은 조개를 추대하고 유당은 달밤에 운성현으로 가다(梁山泊義士尊晁蓋 鄆城縣月夜走劉唐)」. 衆頭領大喜, 殺牛宰馬, 山寨裏筵會. 自醞的好酒, 水泊裏出的新鮮蓮藕並鮮魚, 山南樹上, 自有時新的桃·杏·梅·李·枇杷·山棗·柿·栗之類, 自養的雞·豬·鵝·鴨等品物, 不必細說.
『남정팔난기』 천, 제2회 「의형제를 맺은 황극은 남화산 노사를 방문하고 큰 호랑이를 만나는 하나의 고난을 겪는다(結義弟南華訪老師 遭大蟲黃極經一難)」, 30쪽. 一邊殺牛宰羊, 正堂裡宴會. 自醞的好酒, 浦溆裏出的新鮮蓮藕蓴菜, 並鮮魚肥鮓, 後園裡樹上, 自有時新的桃·杏·李·梅·枇杷·山棗·柿栗之類, 自養的雞·猪·鵝·鴨等, 品物不必細說.

www.kci.go.kr

라거나, “몸을 불사를 만큼 강렬한 화가 정수리를 뚫고 삼천 장 솟았다(心頭那把無明業火高擧三千丈)”는 표현 역시 〈수호지〉에 있다.

차용한 서술 가운데는 문화적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도 있다. 한문본 제3회에서 황극과 주봉진은 눈보라를 피해 주점에 들어간다. 한문본은 주점에 들어가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술과 안주를 시키고 점원이 술을 따라주는 일거일동(一擧一動)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이때 서술은 〈수호지〉 제10회에서 임충이 눈보라를 피해 주점에서 들어가 술을 마시는 대목을 그대로 차용한다. 점원이 술을 따라주는 등 주점 내 광경은 조선과 사뭇 다르지만, 한문본 작가는 문화적 이질감에 개의치 않고 ‘생생한 표현’에 주목해 〈수호지〉 서술을 차용한 것이다.[23]

〈삼국지연의〉를 모방한 삽화는 앞 절에서 언급했다. 한문본은 〈삼국지연의〉 위령제 삽화를 모방하면서 서술 역시 차용한다. 다음은 두 작품 속 제문(祭文)의 일부다.

> 我大宋皇帝, 明繼三王, 威逾五伯. 昨者遠方侵境, 異俗起兵. 縱蠆尾以興妖, 恣狼心而逞亂. 我承皇命, 問罪遐荒. 大擧貔貅, 悉除螻蟻. 雄兵雲集, 狂寇氷消. 才聞破竹之聲, 便同失猿之勢. 但士卒兒郎, 盡是九州豪傑, 官僚將校, 皆爲四海英雄. 習武從征, 投明事主, 莫不同申皇命, 共展將略. 齊堅奉國之誠, 盡效忠君之志. 何期你等偶失兵機, 誤落奸計. 或爲流矢所中, 魂掩泉臺. 或爲刀鎗所傷, 魄歸長夜. 生則有勇於當世, 死則成名於鬼雄. 今凱歌已還, 獻俘將及. 你等精靈尙在, 祈禱必聞. 隨我旌旗, 逐我部曲, 同回上國, 各認本鄕, 受骨肉之蒸嘗, 領家人之祭祀. 莫作他鄕之鬼, 徒爲異域之魂. 我當奏之皇帝, 使你等各家眷屬, 盡治國王恩露, 年給衣糧, 歲賜廩祿, 用玆酬答, 以慰你心[24]
>
> 〈남정팔난기〉

23) 《사대기서》를 고루 살피고자, 한문본에 가장 짙은 음영을 드리웠던 〈수호지〉를 소홀히 살핀 감이 없지 않다. 〈수호지〉 수용과 의미는 후속 논고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24) 『남정팔난기』 인, 제15회 「탑랑전을 가득 채운 두 나라 임금과 백성을 사로잡고 영창

www.kci.go.kr

我大漢皇帝, 威勝五霸, 明繼三王. 昨自遠方侵境, 異俗起兵. 縱蠆尾以興妖, 恣狼心而逞亂. 我奉王命, 問罪遐荒. 大擧貔貅, 悉除螻蟻. 雄軍雲集, 狂寇冰消. 纔聞破竹之聲, 便是失猿之勢. 但士卒兒郎, 盡是九州豪傑. 官僚將校, 皆爲四海英雄. 習武從戎, 投明事主, 莫不同申三令, 共展七擒. 齊堅奉國之誠, 並效忠君之志. 何期汝等偶失兵機, 緣落奸計. 或爲流矢所中, 魂掩泉臺. 或爲刀劍所傷, 魄歸長夜. 生則有勇, 死則成名. 今凱歌欲還, 獻俘將及. 汝等英靈尙在, 祈禱必聞. 隨我旌旗, 逐我部曲, 同回上國, 各認本鄕, 受骨肉之烝嘗, 領家人之祭祀. 莫作他鄕之鬼, 徒爲異域之魂. 我當奏之天子, 使汝等各家盡霑恩露, 年給衣糧, 月賜廩祿. 用茲酬答, 以慰汝心.[25]

〈삼국지연의〉

새 만왕(蠻王)을 세운 황극은 개선하며 노수에 이르러, 전몰장병을 위해

군에서 황극은 위령제를 지내다(搭郎甸兩國充俘 永昌郡元帥建醮)」 51~52쪽. 우리 대송 임금은 우왕, 탕왕, 문왕을 계승해 위엄이 춘추시대 다섯 제후를 뛰어넘으셨다. 지난날 후미진 곳에서 국경을 침범했고 오랑캐가 군사를 일으켰다. 전갈의 독으로 요사스러운 일을 벌였고, 이리의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나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죄를 묻고자 황야까지 왔다. 비휴 같은 용사는 등용했고 땅강아지, 개미 같은 이는 내쳤다. 용맹한 군사가 구름처럼 모이니, 미친 도적은 얼음처럼 녹아 없어졌다. 파죽지세로 들이치자 도적은 무리 잃은 원숭이처럼 달아났다. 병사들은 모두 중원의 호걸이요, 장수들은 모두 천하의 영웅이어라. 무예를 익혀 정벌에 나섰고 대의를 좇아 임금을 섬겼다. 임금의 명을 거듭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장수의 기량을 펼쳤다. 나라를 받드는 정성을 굳건히 함께했고 충성을 다하였다. 어찌 그대들이 이길 기회를 뜻하지 않게 놓치고 간계에 빠질 줄 알았겠는가! 어떤 이는 눈먼 화살에 맞아 혼이 저승에 갇혔고 어떤 이는 칼과 창에 상해 혼백이 긴긴밤으로 돌아갔다. 살아서 세상 가운데 용맹했고 죽어서는 영웅 가운데 이름을 날렸노라. 이제 개선가 부르며 귀환해 포로를 바치겠다. 그대 영령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도를 틀림없이 들을 터. 우리 깃발을 따르고 우리 군대를 좇아오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자.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 피붙이의 차례를 받고, 집안 제사를 받으라. 객귀는 되지 말지어다. 이역의 외로운 혼은 되지 말지어다. 나는 당당히 임금께 아뢰어, 그대 집안마다 빠짐없이 나라와 임금의 은혜를 내리겠다. 해마다 의복과 양식을 주고, 다달이 녹봉을 주겠다. 이러한 보답으로나마 그대들을 위로하겠노라!

25) 『삼국지연의』, 제91회 「제갈공명은 노수에서 위령제를 지낸 뒤 개선하고 중원을 정벌하기 위해 출사표를 올리다(祭瀘水漢相班師 伐中原武侯上表)」.

www.kci.go.kr

위령제를 지낸다. 인용문을 나란히 둔 데서 드러나듯, 두 작품 속 제문은 자구까지 일치한다. 한문본 작가는 〈삼국지연의〉에서 위령제 삽화를 모방하면서, 유려한 표현을 여겨보고 제문을 차용한 것이다.

이제 살필 것은 〈금병매〉를 차용한 서술이다.

> 乃歌道: 圓盈盈銀盆面, ①淸冷冷杏子眼, ②直隆隆瓊瑤鼻, ③細彎彎遠山眉, 嬌夭夭桃花臉, 顫巍巍楊且顔, 膩油油烏雲髮, 潔皎皎粉簇耳, ④香馥馥櫻桃口, ⑤小尖尖春蔥手, 紅縐縐石榴裙, 軟濃濃香羅帶, ⑥恰一搦柳腰兒, 强半紮金蓮兒[26] 〈남정팔난기〉

> 但見, 他賽鴉鴿的鬓兒, ⓐ翠彎彎的新月的眉兒, ⓑ淸冷冷杏子眼兒, ⓒ香噴噴櫻桃口兒, ⓓ直隆隆瓊瑤鼻兒, 粉濃濃紅艷腮兒, 嬌滴滴銀盆臉兒, 輕嫋嫋花朶身兒, ⓔ玉織織葱枝手兒, ⓕ一捻捻楊柳腰兒, 軟濃濃粉白肚兒, 窄星星尖趫脚兒[…中略…][27] 〈금병매〉

상하 인용문 가운데 위는 주봉진이 부른 노래, 아래는 〈금병매〉에서 반금련과 서문경이 마주칠 때 나오는 반금련의 외관 묘사다. 한문본 제6회에서 주봉진은 손소저(손만홍의 딸)에게 반한다. 주봉진은 감정을 못 이겨 시를 쓴 다음 노래를 부른다. 해당 노래는 손소저의 외관을 제재(題材)로 삼는다. ①과 ⓑ, ②와 ⓓ, ③과 ⓐ, ④와 ⓒ, ⑤와 ⓔ가 대체로 일치한다.[28]

---

26) 『남정팔난기』 천, 제6회, 107쪽. 이에 노래했다. 둥글고 곱고 고운 은그릇 얼굴 / 맑고 차디찬 살구 눈동자 / 곧고 오똑오똑한 옥 코 / 가늘고 굽이진 먼 산 같은 눈썹 / 아리땁고 생기 있는 복사꽃 빰 / 흔들리고 휘청대는 버드나무 표정 / 매끄럽고 함치르르한 먹구름 머리카락 / 깨끗하고 밝은 흰 살촉 귀 / 향기롭고 그윽한 앵두 입 / 작고 섬세한 봄 파 같은 손 / 붉고 주름진 석류 치마 / 부드럽고 풍성한 비단결 허리띠 / 한 줌이나 될 듯 버들 허리 / 반쯤 드러난 금빛 연꽃 발이어라.

27) 『금병매』, 제2회 「반금련은 문발 밑 사내를 유혹하고 왕파는 찻집에서 여자 꾀는 기술을 설명하다(俏潘娘簾下勾情 老王婆茶坊說技)」.

28) ⑥과 ⓕ는 비슷하지만 〈금병매〉가 아닌, 〈서상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서

www.kci.go.kr

주봉진의 노래는 〈금병매〉의 차용인 것이다.

위 노래에 앞서, 주봉진은 연정시를 쓴다. 이 시는 《전등신화》 〈연방루기〉의 차용이다.[29] 한문본 작가는 주봉진의 심리를 연정시로써 형상한 다음, 다시 노래로써 손소저의 외관을 형상한다. 이는 한문본 작가가 인물의 정감을 토로하는 것과 함께 '묘사'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간 널리 쓰였던 '침어낙안지용(侵漁落雁之容)'이나 '폐월수화지태(閉月羞花之態)' 등 상투구를 마다하며 〈금병매〉를 차용했는데, 이로써 작가는 상투구로는 얻지 못할 '문학적 감흥'을 독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한문본 작가가 '생생한 형상화'를 자못 중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주봉진의 사(詞)다. 이 사(詞)는 《전등신화》 〈취취전〉을 차용한다.

①錦城柳, 錦城柳,
往日靑靑今尙新.
月下燈前重相逢,
新人不是他人.
想當初揮釰一場結果,
心倏爾變成月姥絃.
②意中無別意,
親後更誰親.[30]

상기〉에 "繡鞋兒剛半拆, 柳腰兒恰一搦"라는 표현이 있다. 또 한문본 제2회 산장시는 "寄語西湖河畔柳, 安排靑眼送行人"인데 〈서상기〉 제28회 산장시 "一雙鸞鳳兩相親, 從此難忘夙世恩, 寄語河橋西岸柳, 安排靑眼送行人" 전결구와 일치한다.

29) 『남정팔난기』 천, 제6회, 106쪽. 路入蓬山頂上來 / 芙蓉一朶向人開 / 此身願作偸香蝶 / 遊戱花叢日百廻. 길 따라 봉래산 정상에 오르니 / 부용화 한 송이 사람을 보고 피었네 / 이 몸은 향기를 훔치는 나비 되리다 / 꽃 수풀 속에서 하루 백번 날아다니겠소.
『전등신화』, 「연방루기」. 誤入蓬山頂上來 / 芙蓉芍藥兩邊開 / 此身得似偸香蝶 / 游戱花叢日幾回.

30) 『남정팔난기』 인, 제17회 「애일부를 써 나라에 효를 일으키고 큰 제사를 지낸 뒤

www.kci.go.kr

①은《태평광기》〈유씨전〉에서 한익(韓翊)이 쓴 시 첫 구절의 변용이다. 〈유씨전〉은 "章臺柳 章臺柳 昔日靑靑今在否"로 나온다. ①은 문헌에 따라 자구가 다소 다르다. ①과 비슷한 "往日靑靑今在否"라고 기재된 문헌으로《사문류취》,《육십종곡》 등이 있다. ②는 〈취취전〉 말미 김생의 화답시 끝 구절이다.

이제껏 살폈듯, 한문본은 주봉진의 애정담 대목에서 〈금병매〉를 위시해《전등신화》 〈연방루기〉와 〈취취전〉을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수호지〉, 〈삼국지연의〉, 〈서유기〉는 남녀 애정을 절실하게 다루지 않아 주봉진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한 서술을 찾기 어려웠을 터다. 한문본 작가는 작품 저마다의 장단을 익히 알고 애정담 대목에서 〈금병매〉와《전등신화》 등 남녀 관계를 치밀하게 다룬 작품을 차용한 것이다.

이제껏 서술의 차용을 살폈다. 한문본 작가가 가장 많이 차용한 작품은 〈수호지〉였다. 또 〈금병매〉와《전등신화》를 차용했다. 〈금병매〉나《전등신화》를 차용한 서술은 주봉진의 애정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한문본 작가는 작품 저마다의 특장을 꿰고《사대기서》와《전등신화》의 서술을 차용해 제시했다. 소설 속 '생생한 표현'이 주는 감동과 재미를 특별히 고심한 결과였다.

3. 창작방식의 의미

한문본은《사대기서》 등 유명한 중국소설을 전범으로 삼아 모방한 것일

우화등선하다(賦愛日興孝一國 設大醮羽化三淸)」. 77~78쪽. 금성 버드나무여 금성 버드나무여 / 전날 푸르름 지금 더 푸르구려 / 달 아래 다시 만나니 / 새색시 다른 이 아니었구려 / 옛일 생각하니, 칼 휘두르며 한바탕 결판내려고 했었지 / 도리어 마음은 변해 월하노인 끈에 묶였소 / 마음속에 다른 뜻 없으니 / 친밀한 뒤 뉘와 다시 친밀하겠소.

www.kci.go.kr

뿐, 원작의 흔적을 지운 채 창안인 양 제시하는 표절은 아니었다. 이처럼 전범이 될 만한 기존 작품을 '모방'해 참신한 작품을 내놓는 작법은 시가(詩歌)의 학습과 창작을 위해 활발하게 쓰였다.[31] 예컨대, 관행에 따라 율시는 『영규율수』, 절구는 『연주시격』을 창작에 참조했었다.[32]

한문본은 백화체로 쓰였고 각종 삽입 문예문을 제시하며 다양한 문체를 아우른다. 제6회에서 주봉진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한 편은 송옥, 〈등도자호색부(登徒子好色賦)〉를 활용한다. 한문본 작가가 시작(詩作)을 학습했다는 사실에 췌언은 필요 없을 터다. 저명한 중국소설을 모방 및 차용하되 참신한 서사로 구축(構築)한 작법은 '시가 학습과 창작의 관행'을 소설 창작에 적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8세기에 이르면 많은 조선 문인이 《사대기서》를 읽는다. 호불호는 갈리지만, 당시 문인이 《사대기서》를 열독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예컨대, 이덕무는 《사대기서》에 아주 비판적이었고, 유만주는 복합적 시선을 보였다. 이 밖에 조선문인이 사대기서를 봤다는 기록은 많다. 19세기에 이르면 《사대기서》를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의견까지 나타난다.[33] 《사대기서》를 위주로 중국소설을 모방 및 차용한 창작방식은 한문본이 《사대기서》 열독이라는 '문화 조류'를 추수해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한문본은 모방을 숨기는 게 아닌 자구까지 고스란히 차용해 모방의 대상이 되었던 중국소설을 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한다. 〈수호지〉를 모방한 송군과 연환마군의 격돌, 〈삼국지연의〉를 모방한 노수 위령제는

31) 류화정, 「『동인시화』에 수용된 중국 시학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6, 동양한문학회, 2013, 103~119쪽; 류화정, 「조선전기 『정선당송천가연주시격』의 수용과 활용」, 『대동한문학』 44, 대동한문학회, 2015, 19~33쪽.

32) 김상일, 「『정선당송천가연주시격』과 조선조 간행의 의미」, 『동악어문학』 36, 동악어문학회, 2000, 409~410쪽.

33) 차충환, 「조선시대 중국소설의 수용과 비평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3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31~233쪽.

www.kci.go.kr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문본은 서사 전개상 절실하지 않은 대목에서 〈서유기〉와 〈금병매〉를 모방 및 차용한다. 한문본의 주재(主材)인 《사대기서》를 독파했다는 것을 넘어 서사와 서술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는 작가 자신의 '박람강기'와 《사대기서》를 떡 주무르듯 활용하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겠다.

한문본 작가가 《사대기서》를 위주로 중국소설을 모방한 것은 명백하다. 그렇지만 한문본은 《사대기서》 등 중국소설과 다른 '고유성'을 확보한다. 한문본이 확보한 고유성은 중국소설에 대한 '애호'와 '반감'이라는 '복합적 인식'에 기반을 둔다.

유만주를 통해 '복합적 인식'의 일례(一例)를 살필 수 있다. 김하라에 따르면, 유만주는 《사대기서》를 독파한 뒤에도 〈수호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애독했다.[34] 또 유만주는 한편으로 〈수호지〉를 우려했다. 1784년 4월 23일자 일기에서 그는 "〈수호지〉는 권모술수의 책이요, 인정세태의 책이요, 혼돈에 구멍을 내는 책이요, 둘이 있어선 안 될 책이다."라고[35] 평했다.

유만주는 〈수호지〉를 두고 혼돈에 구멍을 내는 책이라며 우려한다. 『장자』에서 숙과 홀은 혼돈에게 칠규(七竅)를 뚫는다. 칠규가 뚫리자 혼돈은 죽는다. 이 우화는 물정 모르던 순박한 상태에서 칠규가 뚫려 인식(認識)의 창구가 생기는 일을 본성을 잃고 죽음에 이르는 불행이라고 이야기한다. 〈수호지〉는 혼돈에 구멍을 뚫는 책 다시 말해서, 순박한 심성에 전에 없던 인식의 창구를 내 "인간의 어두운 면모"를 알게 만드는 책이다. 유만주에게 〈수호지〉는 "인간의 어두운 면모를 누설하는"[36] 책인 셈이다.

한문본 작가는 《사대기서》 가운데 〈수호지〉를 적극 모방하면서도 다른

34) 김하라, 「兪晩柱의 『水滸傳』 讀法」,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409쪽.

35) 유만주, 『흠영』 권17, 1784년 4월 23일. 水湖是權謀機詐之書也, 是人情世態之書也, 是開鑿混沌之書也, 是不可有二之書也.

36) 김하라, 앞의 논문, 409쪽.

www.kci.go.kr

시각을 개진한다. 예컨대 한문본은 '권모술수'와 '잔혹한 사건'에 대한 응보를 명확하게 설정했으며 불법을 자행하는 법외 도당을 징치한다. 이로써 인간의 '어두운 면모'를 적나라하게 형상하는 게 아닌, 충 · 효를 감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결말에서는 무상감을 느낀 황극이 우화등선하는 것으로 설정해, 유교적 가치의 한계를 노출하고 도교의 이상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요컨대, 중국소설을 모방 및 변용하는 작법은 작가가 지녔던 중국소설을 향한 애호와 반감이라는 '복합적 시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흥미로운 삽화는 풍부하지만 '윤리의식'은 다소 부족한 중국소설을 극복한 참신한 서사를 쓰겠다는, '창신(創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작가의식'으로서 '창신(創新)의 의지'는 중국소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살폈듯 한문본 작가는 중국소설을 차용해 서술한다. 장수의 장속(裝束) 묘사는 〈수호지〉, 제문은 〈삼국지연의〉, 미인 외관 묘사는 〈금병매〉를 차용한다. 특히 〈수호지〉를 차용한 서술이 많다. 이는 한문본 작가가 서사만큼이나 형상화와 관련된 '서술'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소설 평가는 교훈이나, 권선 여부에 좌우되었다. 예컨대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평가는 도덕 교훈을 제고했다는 사실이 유독 특필되었다. 한문본 역시 서사로써 충 · 효 · 의리를 제고했다. 그렇지만 중국소설을 차용해 장수 장속을 낱낱이 묘사하는가 하면, 여인의 외모를 샅샅이 살폈다. 그 결과 독자는 '연함호두' '표두원비'나 '침어낙안지용' '폐월수화지태' 등등 상투구(常套句)로는 불가했던, 등장인물의 모습을 작은 부분까지 또렷이 그릴 수 있었다. 한문본 작가는 서사만큼이나 '서술'도 소설의 문학성을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술에 나타난 '중국소설의 차용'은 작가가 세밀한 필치가 주는 '감동과 재미'를 고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중국소설의 차용'은 형상화 측면에서 조선소설의 미흡한 지점을 중국소설로써 극복하겠다는 또 다른 '창신의 의지'를 의미했다.

www.kci.go.kr

4. 결언

이 글은 한문본의 국적을 비정하고, '중국소설적 성격'의 연원이 《사대기서》를 위시한 '중국소설'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한문본에 나타난 '중국소설적 성격'을 어떤 방향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을 개진했다. 상기한 측면에서 이 글의 연구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한문본은 모방의 대본(對本)을 고의로 노출했다. 또 원작의 미진한 부분이나 공감하기 어려운 설정은 변용했다. 주재(主材)를 노출하며 변용을 수반했으니, 한문본은 도습(蹈襲)하는 데 그친 표절작이 아닌 모방으로써 창안(創案)까지 나아간 작품이겠다. 삽화에 나타난 모방은 작가가 지녔던 중국소설을 향한 애호와 반감이라는 복합적 시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참신한 서사를 지향하는, '창신(創新)의 의지'을 의미했다.

한문본은 중국소설의 서술을 차용했다. 《사대기서》 가운데 〈수호지〉, 〈삼국지연의〉 서술은 거의 변화 없이 고스란히 제시되었다. 〈금병매〉, 《전등신화》 〈연방루기〉와 〈취취전〉은 주봉진이 주도하는 애정담에 집중적으로 쓰였다. 서술의 '차용'은 한문본 작가가 세밀한 필치가 주는 '감동과 재미'를 고심했으며, 형상화 측면에서 조선소설의 미흡한 지점을 중국소설로써 극복하겠다는 또 다른 '창신의 의지'를 의미했다.

한문본은 《사대기서》 등 유명한 중국소설을 전범으로 삼아 모방한 것일 뿐, 원작의 흔적을 지운 채 창안인 양 제시하는 표절은 아니었다. 한문본 작가는 중국소설을 수용 및 변용함으로써 조선소설과 중국소설을 모두 극복하려고 했다. 중국소설을 수용한 창작방식 이면에는 작가의식으로서 '창신의 의지'가 있었다. 한문본은 이러한 작가의식을 말미암아 중국소설을 닮았으면서도 '조선 취향'이 분명했고 조선소설이면서도 '중국소설적 성격'이 나타났다.

한문본은 국문본으로 번역되며 큰 인기를 누렸다. 국문본의 인기는 향유

www.kci.go.kr

층에 맞춰 부연한 내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조선소설과 중국소설을 모두 극복하겠다는 작가의식에 토대를 두고 구축(構築)했던 원서(原書)의 이채로움에 힘입었다.

이 글은 중국소설에 고루 주목하느라 〈수호지〉를 성글게 다뤘다. 한문본에 드리운 〈수호지〉의 짙은 음영에 대해서는 후속 논고에서 더 자세히 따지겠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남정팔난기(南征八難記)』(일본 오사카 부립도서관, 청구기호: 韓14-29)

『백헌선생집(白軒先生集)』(이경석 저, 한국고전종합DB)

『지나역사회모본』(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4572-1, 『중국역사회모본』,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흠영』(유만주 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古0320-25-v.1-24)

『금병매』(소소생(笑笑生) 저)

『삼국지통속연의』(나관중(羅貫中) 저)

『서상기』(왕실보(王實甫) 저)

『서유기』(오승은(吳承恩) 저)

『수호지』(김성탄(金聖歎) 평비)

『전등신화』(구우(瞿佑) 저)

『태평광기』(이방(李昉) 외 편)

2. 논저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 2004, 29~68쪽.

김도환, 「〈남정팔난기〉의 인물 형상화와 특징」, 『한국학연구』 2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69~200쪽.

김상일, 「『정선당송천가연주시격』과 조선조 간행의 의미」, 『동악어문학』 36, 동악어문학회, 2000, 395~414쪽.

김하라, 「유만주의 『수호전』 독법」,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391~435쪽.

_____, 『일기를 쓰다 -흠영 선집-』 1, 돌베개, 2015, 1~332쪽.

류화정, 「조선전기 『정선당송천가연주시격』의 수용과 활용」, 『대동한문학』 44, 대동한문학회, 2015, 19~33쪽.

_____, 「『동인시화』에 수용된 중국 시학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6, 동양한문학회, 2013, 101~122쪽.

박혜순, 「고전소설에 나타난 복수 영웅 '규합(糾合)'의 특징적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64, 동양고전학회, 2016, 9~44쪽.

www.kci.go.kr

이희자, 「『남정팔난기』에 나타난 영웅성의 의미」, 『국학연구론총』 8, 택민국학연구원, 2011, 267~294쪽.
임치균, 「「남정팔난기」 연구」, 『국문학연구』 1, 서울대학교 국문학연구회, 1997, 233~275쪽.
_____,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355~384쪽.
조희경, 「〈남정팔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8, 1~119쪽.
차충환, 「조선시대 중국소설의 수용과 비평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3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07~239쪽.
최윤희, 「〈남정팔난기〉 유통 형태의 변화와 의미」, 『우리어문연구』 21, 우리어문학회, 2003, 231~256쪽.
_____, 「〈남정팔난기〉의 여성 영웅과 영웅성 발현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293~327쪽.
_____, 「〈남정팔난기〉 영웅 형상과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4, 1~166쪽.
_____, 「한문본 〈남정팔난기〉의 특징」, 『중국소설논총』 24, 한국중국소설학회, 2006, 309~329쪽.
_____, 「〈남정팔난기〉의 인물 관계와 그 의미」, 『고전과 해석』 7,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9, 97~119쪽.
홍현성, 「〈취승루〉국적 연구」,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329~356쪽.

3.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www.kci.go.kr

ABSTRACT

The Creation Method of "*Namjeongpalangi*"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 Focusing on the Use of Chinese classic novels

Hong, Hyun-sung

This study reviews creative style, noting the influence of Chinese classic novels in "*Namjeongpalnangi(南征八難記)*". This classic novel was created mainly from "The Four Great Classical Novels(四大奇書)", using various Chinese classics such as "*jiandengxinhua(剪燈新話)*" and "*Xixiangji(西廂記)*". The most influential work was "*The Water Margin(水滸志)*". In this classic novel, the influence of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演義)*" also appeared. The novel also imitated "*The Journey to the West(西遊記)*" to form an episode of monsters appearing. "The Plum in the Golden Vase(金甁梅)" influenced poetry among the text in "*Namjeongpalnangi*".

The creative method using Chinese novels has three meanings. First, it demonstrated that the author created Chinese characters in line with the cultural trend of reading "the Four Great Classical Novels". Second, It showed the writer's complex view of Chinese novels. Third, it indicated that the writer gave the enjoyment of reading the text.

Key Words Four Great Classical Novels(四大奇書), Journey to the West(西遊記), Namjeongpalnangi(南征八難記), Pastic, Plum in the Golden Vase(金甁梅),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演義), Water Margin(水滸志)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

www.kci.go.kr